

중국 성(省)별 동향 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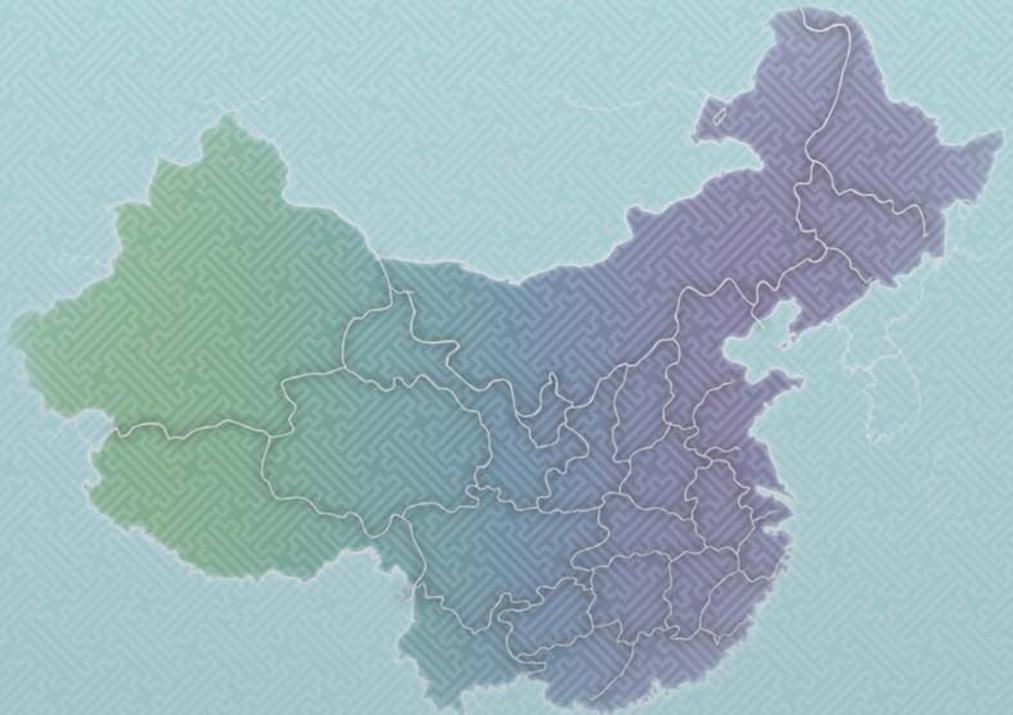
PROVINCIAL ECONOMIC TRENDS IN CHINA

2011년 7월 25일 | Vol. 2 No. 20

ISSN 2093-3282

저장성(浙江省) 중소기업의 경영난 실태와 전망

노수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부연구위원 (syno@kiep.go.kr, Tel: 3460-1284)



차 례 ●●●

1. 저장성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설
2. 경영난 실태
3. 현지 정부의 대응
4. 평가 및 전망

주요 내용 ●●●

- 2011년 4월 이후 몇몇 저장성 유명중소기업이 잇따라 파산하면서 저장성 중소기업이 연쇄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실제로 연쇄도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음. 그러나 잇단 비즈니스 환경악화로 현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경영난을 겪고 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계적인 불황에 따른 주문량 감소 등의 대외요인이 저장성 중소기업 경영난의 원인이었다면, 현재는 자금난, 인력난, 전력난 등 국내 요인이 강함.
 - 자금난의 경우 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에 따른 여신한도 축소로 인해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대출을 받기 위한 부대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은행대출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은 금리가 높은 사금융에 의지하고 있음.
 - 인력난의 경우 인건비 상승과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전력난의 경우 저장성 전체 전력공급 부족으로 대기업 우선 공급정책을 시행하면서 중소기업의 전력공급이 제한되고 있음.
- 저장성 정부는 중소기업 위기설이 나돌자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측의 태도는 아직 미온적이며 가능한 중장기적인 산업구조조정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저장성 중소기업 경영난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 유사 사례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임. 저장성에 진출한 한국기업도 인력난, 전력난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저장성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정책변화를 염두에 둔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함.

1. 저장성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설

■ 중국 언론은 2011년 4월 이후 저장성 유명중소기업의 잇따른 파산 사례를 보도하면서 저장성 중소기업이 연쇄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함.

- 실제로 원저우 장난(江南)피혁, 보터만(波特曼)커피, 쓰촨(三旗)그룹 등이 자금난 등을 이유로 지난 4월 이후 파산했거나 파산 위기에 처해 있으며, 6월 중순에는 원저우시 소재 텐스전자(浙江天石電子有限公司)가 파산했음.
- 원저우시의 대표적인 사기업인 이들 기업의 파산 및 파산 위기는 관련 업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장난피혁의 경우 파산 선고 4일 만에 70여 개 공급업체가 연루되었고, 텐스기업의 파산선고로 인해 이 회사에 연대보증을 섰던 회사들까지 연루되고 있음.
- 원저우 중소기업발전축진회의 저우더원(周德文) 회장은 현재 원저우시 중소기업 중 20%가 반(半)조업중단 상태이며,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하반기에는 반조업중단 상태의 기업수가 40%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함.¹⁾
- 저장성 중소기업국 판공실의 차이장성(蔡章生) 주임도 현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함.²⁾

■ 그러나 정부 측 발표나 수출통계로 볼 때 저장성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저장성 정부는 저장성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조짐이 보이지 않으며, 다만 ‘중소기업 체질 개선과정에서 겪는 성장통(轉型中的煩惱)’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함.
- 일례로 원저우시 공상행정관리국 통계에 따르면, 1/4분기 말 원저우시 사기업의 등록취소³⁾ 건수는 53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4.6% 감소했고, 원저우시에 등록된 사기업수 및 등록자금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5.1%와 28.4% 증가해 종전과 다를 바 없음.⁴⁾
- 또한 저장대학 민영경제연구센터장인 스진촨(史晉川) 교수는 일부 중소기업이 경영난으로 인해 조업중단 또는 반(半)중단 상황에 있지만, 연쇄도산설은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함.⁵⁾
- 2011년 월별 수출현황을 볼 때도 중소기업 경영난으로 인한 뚜렷한 수출감소 현상은 없음(그림 1참고).

1) 『财经』(2011. 6. 27), 「저우더원, “원저우 중소기업 중 20%가 반(半) 조업중단상태”」.

2) 『财经网』(2011. 5. 27), 「저장성, 광둥성 중소기업 줄줄이 도산」.

3) 등록취소는 주관부서에서 영업정지, 영업취소, 파산선고 등의 이유로 영업을 중지한 기업에 대해 법인자격 또는 경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말하며, 도산보다 포괄적인 개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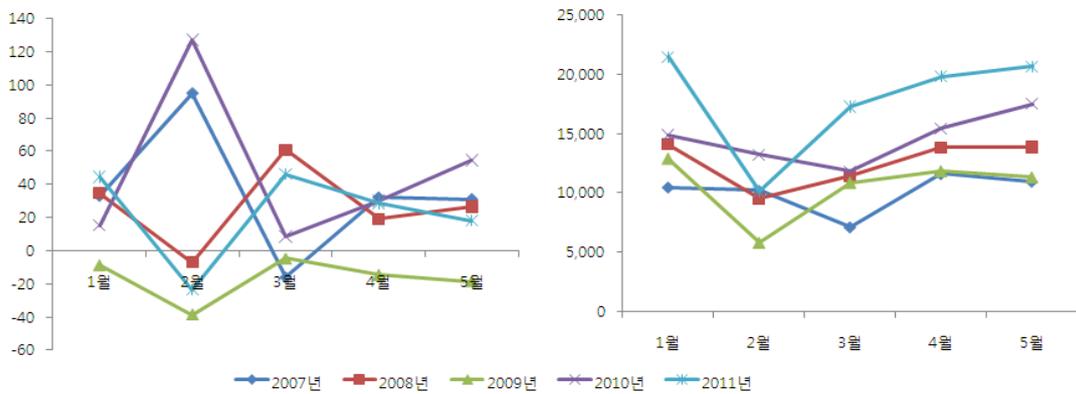
4) 『经济参考报』(2011. 6. 29), 「원저우시 중소기업 도산 계속, 30% 기업이 곤경에 빠져」.

5) 『南方都市报』(2011. 6. 7), 「스진촨 교수: 중소기업 연쇄도산현상은 없다」.

- 2007~11년 5년간 1~5월 월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액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수출이 저조했던 것을 제외하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11년에도 2월을 제외한 모든 달이 비교연도 중 가장 높은 수출액을 기록함.
- 또한 같은 기간 수출증가율을 살펴보면, 2009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가 2010년 증가율이 크게 반등했음. 2011년에는 다른 해보다 특별히 증가율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월별 추이를 볼 때 3월 이후부터 꾸준히 수출증가 속도가 둔화되면서 2009년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어 향후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저장성 2007~11년간 1~5월 월별 수출증가율(좌)과 수출액(우) 변화

(단위: %, 천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검색일: 2011. 7. 1).

- 한편 10대 수출품목을 살펴보면(HS 코드 4단위 기준), 가구, 의류, 섬유, 가방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6개 분포하고 있으며,⁶⁾ 2010년 1~5월과 비교할 때 2011년 1~5월에도 모두 수출액이 증가해 원가상승 및 인민폐 평가절상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가 노동집약적 산업의 수출액 감소로까지 이어졌는지 여부는 아직 뚜렷하지 않음.

■ 현지 언론에서 우려하는 연쇄도산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최근 저장성 중소기업은 비즈니스 환경악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경영난을 겪고 있음.

- 저장성 내에서 중소기업의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은 원저우시임.
- 일례로 한때 2,000개에 달하던 원저우시의 라이터 공장이 지금은 50여 개에 불과함. 일부 기업은 원가부담으로 베트남, 방글라데시 등지로 공장을 이전하고, 그보다 많은 기업은 형식적으로 파산을 선포한 후 자산을 빼돌려 부동산에 투자하는 등 본업을 포기하고 있음.⁷⁾

6) 구체적으로는 의자와 그 부분품(9401),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5407), 기타 신발류(6402), 트렁크, 핸드백, 용기 등(4202), 여성용 또는 소녀용 슈트, 양상블, 재킷 등 의류(6204), 기타 가구와 그 부분품(9403)이 10대 수출품목에 포함됨.

- 인민은행 원저우 지점이 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1년 1/4분기 이윤총액은 전년동기대비 8.7% 증가에 그쳤고, 이익률은 16.0%로 전년동기대비 약 1%포인트 하락했음. 또한 35개 수출업체의 평균 이윤율은 3.1%에 불과했음.

2. 경영난 실태

- 저장성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한 주문량 감소가 원인이었다면, 현재는 자금난, 인력난, 전력난 등 국내 요인이 강함.

가. 자금난

- 은행의 지속적인 지급준비율 인상에 따른 여신한도 축소로 인해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짐.
 - 2011년 6월 20일 인민은행이 올해 들어 여섯 번째로 지급준비율을 인상함으로써 현재 국유상업은행의 지급준비율은 21.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이에 따라 중소규모 금융기관의 예금준비율도 18%에 달함. 이번 기준을 인상은 은행자금 3,700억 위안을 동결시키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 이처럼 은행의 여신한도가 축소되면서 중소기업의 은행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짐.
 - 종전에는 기업의 대출기한이 완료되면 은행에서 1주일 이내에 다시 대출을 연장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최소 1개월 이상이 소요됨.
 -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던 연대보증도 더 이상 통하지 않고, 대출신청 시 반드시 실물자산을 가지고 담보를 삼아야 함. 또한 신용기록, 경영능력, 기업의 발전계획 등도 은행이 면밀히 조사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발전을 규제하려는 업종이나 담보물은 적고 자금수요는 많은 무역 분야 기업은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짐.⁸⁾
 - 원저우시 금융판공실이 350개 기업을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1/4분기 기업운용자금에서 자기자본, 은행대출, 사금융 비율이 각각 56:28:16으로 나타남. 이는 은행대출 비중이 전년동기대비 2%포인트 하락한 반면, 사금융 비율은 전년동기대비 6%포인트 높아진 것임.
- 저장성이 추진 중인 산업구조조정 계획도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대출을 어렵게 함.

7) 『新闻晚报』(2011. 6. 22), 「저장성 중소기업, 자금난 때문에 동남아국가로 이전하기도」.

8) 『都市快报』(2011. 6. 28), 「은행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저장성 중소기업 융자비용 60% 상승」.

- 일례로 저장성은 최근 축전지 등 업종을 대상으로 공해발생 억제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상당수 기업의 가동이 강제로 중단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은행도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에너지 소모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출을 중단했음.
- 이는 비단 오염유발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태양광, 풍력 등 신산업에 대해서도 은행은 이들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이 아직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일부 기업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대출을 제공할 뿐 대규모 대출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전통제조업에서 신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려는 중소기업은 자금난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은행 측은 중소기업 대출규모가 오히려 확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기 위한 부대비용 증가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인민은행 항저우 지점에 따르면, 2011년 4월 말 기준 저장성 중소기업의 대출잔액이 전체 기업대출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4%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3.0%포인트 상승했고, 2011년 1~4월간 중소기업의 신규대출이 전체 기업의 신규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0.3%에 달했음.
- 이처럼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대출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대기업에 속하는 이른바 ‘234형’ 기업들에 제공됨.
 - ‘234형’이란 근로자 2000명, 매출액 3억 위안, 자산규모 4억 위안의 기업으로 진정한 의미에서는 중소기업이라 할 수 없음.
- 이에 반해 대출이 더욱 절실한 이른바 ‘334형’ 기업에는 정작 대출이 많이 제공되지 않고 있음.
 - ‘334형’이란 근로자 300명, 매출액 3,000만 위안, 자산규모 4,000만 위안의 소기업으로 이 중에는 매출액 500만 위안 이하도 상당수 있음.
- 실제로 저장성 공상국(工商局)이 지난 6월 27일 발표한 「저장성 민영기업 경기지수 2/4분기 보고」에 따르면, 모니터링 대상기업 2,600개 중 31%가 현재 용자비용이 지나치게 높다고 대답했으며, 용자비용은 50~60% 상승했음.
- 또한 △ 대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출제공은행에 입금하게 하거나(대출액의 최소 30% 이상을 예금해야 하고 중소상업은행에서는 대출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금하도록 요구함) △ 재테크 상품을 끼워 팔고 △ 재무 중개비용을 지불하게 해 실제 대출에 따른 비용은 은행 기준금리의 두 배에 상당함.

■ 은행대출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이 차선택으로 선택하는 사금융대출도 금리가 높아 부담이 큼.

- 저장성의 사금융 자본규모는 1조 위안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저우시 한 곳만 해도 6천억~8천억 위안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사금융 대출을 사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임. 첫째, 단기 자금회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금융 대출을

이용하는 것으로 은행대출을 다시 받거나 다른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기업이 다시 정상적인 운용을 하게 됨. 둘째, 대출기한이 3~6개월에 달하고 대출규모도 큰 편인 경우로 다른 자금확보가 충분히 안 될 경우 계속 사금융 대출을 받게 되면 결국 불어나는 이자부담으로 파산에 이를 위험이 있음.

- 사금융 대출업체의 대출신청 수속은 매우 간단해서 부동산 담보만 있으면 즉시 대출받을 수 있지만 금리가 높음.
- 현재 사금융 대출금리는 연 18% 이상이며, 단기대출의 경우 연 60~72%로 고리대 수준임. 저장성 중소기업국의 6월 16일 발표에 따르면, 저장성 내 상당수 지역의 사금융 대출금리는 연간 25~30%임.

나. 인력난

■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이 가중됨.

- 2011년 5월 1일 기준, 전국 31개 성/시의 최저임금기준을 살펴보면, 저장성이 1,310위안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음. 이는 광둥성(1,300위안)이나 상하이(1,280위안), 베이징(1,160위안)보다 높은 수준임.
- 저장성 중소기업 임금은 올해 들어 평균 10~30% 상승했고, 일부 기업은 올해 들어 두 차례 임금을 인상했음. 특히 방직업의 임금인상폭이 가장 두드러져 방직공 임금은 2010년 월 1,700위안에서 2,500위안으로 40% 인상했음.
- 원저우 공업원구 소재 기업의 인건비는 최근 6개월 사이에 평균 25~30% 인상됨.⁹⁾

■ 더 큰 문제는 임금을 인상해도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임.

- 2011년 5월 저장성 상공업연합회(工商聯) 연구실의 저우관신(周冠鑫) 주임이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저장성 소기업 중에서도 노동집약형 소기업의 근로자 부족률은 15~20%에 달하고, 인건비도 지난해 보다 15~20% 상승했음.
- 또한 원저우시 경무국(經貿局)에서 1/4분기 말 85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4.5%의 기업이 구인난을 토로함으로써 전년동기대비 14%포인트 증가함.
 - 특히 신발, 의류, 안경, 라이터, 필기구, 자물쇠 등 노동집약형 업종의 구인난이 더욱 심각해 필요한 인력을 10% 이상 구하지 못한 기업의 비율이 80% 이상에 달함.
 - 또한 1/4의 기업이 인력부족으로 인해 생산능력이 포화상태에 달해 주문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 이는 장시(江西), 후베이(湖北), 안후이(安徽) 등 전통적으로 노동력을 수출하던 내륙지역으로 기업들의 이전이 늘어나고 현지 경제가 발전하면서 노동력 수요가 늘어나 내륙 근로자의 연해지역 이동이 줄어들게 된 것과 관련이 있음.

9) 『21世纪经济报道』(2011. 6. 4), 「원저우기업 줄도산 진상조사」.

글상자 1. 타이저우빈하이 플라스틱몰드그룹(台州濱海模塑集團公司)¹⁰⁾

- 1987년 설립된 저장성 타이저우시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자동차, 오토바이 및 조명기기의 플라스틱몰드를 생산함. 종업원 규모는 1,200명임.
- 현재 생산직 근로자, 특히 사출성형(injection molding)¹¹⁾ 기술자가 부족함.
- 설 연휴부터 쓰촨(四川), 구이저우(貴州) 등 내륙지역에 가서 인력을 모집하고 있으나, 여전히 1/3의 인력이 부족함.
- 이직을 막기 위해 2011년 음력설 연휴 직전에 임금을 300위안 인상했고, 매일 무료로 야식을 제공하지만 사출성형 기술자는 며칠 근무하면서 기술만 배워서 이직하고 있음.
- 5월부터 인력부족이 심각해지면서 5월 초부터 행정인력이 매일 16명씩 사출성형 업무를 하고 있으며, 기존에 지급하던 월급 이외에도 공장근무 1일당 100위안씩 추가 지급하고 있음.

■ 지역별 구인·구직 비율을 보면, 2009년 저장성은 베이징 다음으로 높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1 참고).

- [표 1]에서 보듯이 저장성은 베이징시 다음으로 인력부족이 심각하며, 특히 구인·구직 비율이 2008년 1.26%에서 2009년에는 1.58%로 25%포인트 이상 높아져서 다른 지역보다 구인난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표 1. 중국 주요 지역의 구인, 구직 현황

	2008년			2009년		
	구인수	구직자수	구인·구직 비율	구인수	구직자수	구인·구직 비율
전국	5507.0	5532.0	1.00	6045.7	5805.7	1.04
베이징	117.2	40.8	2.87	122.2	40.3	3.03
상하이	154.1	522.7	0.29	168.7	547.8	0.31
장쑤	445.6	496.3	0.90	531.6	552.5	0.96
저장	739.4	587.7	1.26	777.8	491.0	1.58
산둥	333.3	271.3	1.23	358.1	295.1	1.21
광둥	1232.0	1023.6	1.20	1348.4	1122.6	1.20

주: 1) 직업소개소를 통해 구인, 구직된 통계치이므로, 실제 수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구인·구직 비율은 구인수/구직자수로 계산했으며, 그 값이 1을 초과하면 구인난을, 1 미만이면 취업난을 의미함.
 자료: 『중국통계연감』(2009, 2010).

10) 『中国经济时报』(2011. 6. 21), 「월가상승으로 인해 기업의 이윤 감소」.

11) 가열에 의해 녹은 플라스틱 재료를 금형 속으로 사출시켜 고화(固化) 또는 경화(硬化)시켜 성형품을 만드는 가공방법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등의 캐비닛, 스위치류, 조명기구 등 복잡한 공업부품을 비롯해 각종 잡화품도 대부분 이 방식으로 제조됨(<http://www.scienceall.com>).

다. 전력난

■ 저장성은 전체 지역이 전력난을 겪으면서 이른바 ‘유보유한(有保有限)’이라는 정책을 시행하여 유명 대기업에 우선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에는 전력공급을 제한하고 있음.

- 원저우시는 기업마다 차별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음.
 - 원저우시 50대 기업에 대해서는 전력공급을 보장해주는 데 반해, 에너지 사용량이 높고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공급, 피크타임을 피한 전력공급, 50% 전력공급 등 여러 방안을 실행하고 있음.
 - 성장형 하이테크업체나 신에너지기업에 대해서는 최적화된 전력공급 방안을 제공하고 있음.
 - 전력사용이 많은 문제기업 21개사를 조사해 한도를 초과한 전력량에 대해서는 1kW당 0.1~0.3위안을 초과 징수하는 징계형 전기료를 시행할 계획임.¹²⁾
 - 이에 따라 원저우시 소재 36만 개의 중소기업은 초기에는 하루 공장을 가동하고 2~4일은 정전되다가 최근에는 열흘 정전되고 5일 조업하는 실정임.
 - 원저우시는 주로 저장전력망(浙江電網)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화동전력망(華東電網)에서 일괄 조달하는데, 전력이 부족할 때에는 안후이성이나 푸지엔성 등 인근 지역에서 전력을 구매해 공급해왔음. 그러나 전력사용량이 많은 시기에는 다른 지역도 여분의 전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는 전력량이 제한적임. 또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이 줄고 있으며, 일부 발전소는 고장을 일으켜 전력공급 능력이 저하되고 있음.
- 닝보(寧波)시도 올해 들어 전력피크 시간대의 에너지 분산정책을 세 차례 시행해 일부 기업이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됨.
- 정류자(commutator) 제조업체인 저장창청(浙江長城換向器有限公司) 관계자는 전력공급이 1시간 중단될 때마다 2천 유로의 생산량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고 밝힘.¹³⁾

■ 일부 기업은 주문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전력공급이 중단될 때 자체발전시설을 가동하고 있으나 비용이 높아 어려움이 많음.

■ 중소기업의 전력부족 문제는 저장성의 전력공급 부족뿐만 아니라 정부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 정책 때문이기도 함.

12) 『中国经济时报』(2011. 6. 15), 「중소기업생존현황조사: 저장성편(1)」.

13) 『中国经济时报』(2011. 6. 15), 「중소기업생존현황조사: 저장성편(1)」.

- 저장성 정부가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배출감소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존 미달의 중소기업에 시정 조치를 지시하고 시정될 때까지 전력공급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음.
- 일례로 타이저우시 소재 타이어 제조업체인 톈핑타이어(天風輪胎)는 올해 6월 초 환경기준치에 미달되다 는 이유로 전력공급을 중단하려는 공무원과 충돌하여 일부 공장건물이 철거되고 법인 대표의 아들이 구류를 받았음.¹⁴⁾

3. 현지 정부의 대응

■ 저장성 정부는 중소기업 위기설이 나돌자 지난 5월부터 실태조사에 나서 그 결과를 발표함.

- 저장성 중소기업국은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銀監會)와 함께 5월 저장성 타이저우(台州), 윈저우(溫州) 등지를 돌며 중소기업 도산실태를 조사하고, 6월 16일 『저장성 중소기업 최근 상황과 문제에 관한 조사 보고서(我省中小企業新情況新問題調研報告)』를 공식 발표함.
- 보고서에서는 저장성 중소기업이 최근 직면한 문제를 생산원가 상승, 융자난, 노동력 부족, 전력부족, 수출의 어려움 등으로 분석함.
- 또한 해결책으로 △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유도하며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 대기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며 △ 신흥전략산업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전통산업 중소기업을 업그레이드시키며, 기술, 제품, 생산력 등이 낙후된 중소기업을 구조조정하고 △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며 △ 대내발전 및 대외교류를 결합시킬 것을 밝힘.
- 그러나 현재 저장성 중소기업이 당면한 어려움, 특히 자금난을 단시일 내에 해소해줄 구제책이나 조치는 언급되지 않음.
- 저장성 공상련(工商聯)은 5월 말 저장성 소규모 공업기업의 발전현황에 관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경제정책이 계속 긴축적일 경우 저장성 민영경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규모 공업기업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전망함.

■ 업계에서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측은 가능한 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중소기업협회 등 관계 기관에서는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을 줄이고 대출을 지원해주는 조치를 취해줄기를 촉구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해결방안은

14) 『中国经济时报』(2011. 6. 15), 「중소기업생존현황조사: 저장성편(1)」.

나오지 않은 상황임.

-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현지 중소기업 경영난의 원인을 개별 기업의 생산과잉, 기술 및 시설의 낙후성 등 기업 내부의 문제로 보고, 이들 기업의 업종전환 또는 구조조정(업그레이드)을 강조하기도 함.¹⁵⁾
- 대신 회계, 법률, 자산평가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6월 30일 저장성 중소기업 서비스 연합회를 발족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기술혁신, 창업지도, 인재교육, 융자담보, 시장개척, 해외협력 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저장성 정부는 이 연합회를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힘.

■ 원저우시 정부 유관부처, 인민은행 원저우 지점,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원저우 지국 등이 5월 26일 '강점을 살려 금융시범단지를 조성하는 것에 관한 토의안건(議案)(關於發揮優勢打造金融試驗區的議案)' 을 토론함.¹⁶⁾

- 이 안건에서는 원저우시 사금융 규모가 6천억~8천억 위안에 달하므로 이를 기업 융자난 문제 해결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이를 위해 기존 촌진(村鎮)은행의 시범적 시행범위를 확대하고, 소액대출회사를 발전시키며, 금융시장 진입 및 금리변동폭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것을 제안함.

4. 평가 및 전망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장성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설은 특정 기업의 파산 사례를 일반화시켜 다소 과장된 면이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의 자금난, 인력난, 전력난 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 유사 사례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저장성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는 저장성뿐 아니라 광둥성, 장쑤성 등 다른 지역 중소기업도 직면한 공통의 문제이며, 다만 저장성이 중국에서 중소기업 비중이 가장 높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훨씬 크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된 것임.
- 2008년 불황의 경우 해외 주문량 감소 등의 해외요인이 강했다면, 현재의 어려움은 자금난, 인력난, 전력난 등의 국내요인이 강함. 즉 자금난, 인력난, 전력난 등으로 인해 이윤이 급감하면서 오히려 주문을 수주할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이들 문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감안할 때 저장성에서 시작된 중소기업 경영난은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15) 『中国经济时报』(2011. 6. 30), 「중소기업생존현황조사: 저장성편(6)」.

16) 『21世纪经济报道』(2011. 6. 4), 「원저우기업 줄도산 진상조사」.

글상자 2. 저장성 경제와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저장성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저장성 기업수의 99.7%를 차지함.
- 중소기업의 공업 부가가치액이 저장성 전체 공업 부가가치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이고, 수출액은 저장성 전체의 90%를 차지하며, 세수는 전체의 60%, 고용은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음.¹⁷⁾

■ 저장성 중소기업은 경영난 타개를 위해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지금까지 수출의존형,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경공업에 종사하던 중소기업들이 장기화되는 경영난 속에 상당수 정리되고,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하거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포지셔닝한 중소기업들이 부상할 전망이다.
- 이러한 움직임이 대세가 되어 성공하게 되면 저장성 지역경제의 산업구조가 예상보다 빠르게 고도화될 수도 있으나 저장성은 지금까지 지역별로 노동집약형 전통산업에 특화시켜 발달해왔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¹⁸⁾
- 또한 산업구조조정이 지나치게 빨리 이루어질 경우 해당 지역경제의 기초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어 저장성 정부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
- 지금까지 저장성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자생자멸(自生自滅)을 원칙으로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중소기업의 특징이나 발전방향을 염두에 둔 체계적인 정책지원을 하지 않았음. 그러나 이번 경영난을 계기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증가, 사회불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방안이 나올 수도 있음. 특히 세금부담을 줄여주거나 중소기업 전용대출창구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음.

■ 저장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력난, 전력난은 저장성에 진출한 한국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저장성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정책변화를 염두에 둔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함.

- 저장성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의 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저장성 중소기업 경영난이 직접적으로 한국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음.
- 특히 한국기업이 현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현지의 자금난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

17) 『中国经济时报』(2011. 6. 17), 「중소기업생존현황조사: 저장성편(3)」.

18) 저장성 경제는 일명 ‘블록형 경제(塊狀經濟)’로 칭해지며 지역마다 특정 산업(라이터, 벡타이 등)을 집중 발전시켜 대형전문시장까지 탄생시키는 형태로 발전해왔음.

- 그러나 지역 및 업종에 따라 영향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현지에 공장을 가동 중인 중소기업의 경우 전력부족과 인건비 및 생산원가 상승은 문제가 됨. 특히 의복, 섬유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표 2 참고).

표 2. 저장성 투자 중소기업체의 업종 분포(1991~2011년 3월)

(단위: 개, 천 달러)

업종 중분류	신규법인 수(누계)	투자금액(누계)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94	30,26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84	63,51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1	51,612
기타 제품 제조업	43	6,89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6	17,159
전기장비 제조업	29	9,00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8	11,66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5	14,67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12,647
식료품 제조업	21	7,75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	10,84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7	31,13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3	2,448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12	3,13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0	4,493
합 계	559	295,131
저장성 투자 한국기업 합계	596	1,068,916
대기업	37	773,785

주: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형태를 총괄함. 구체적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수집한 중소기업, 개인기업, 개인, 비영리단체를 포함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검색일: 2011. 7. 1).

- 일례로 이우(義烏)시의 경우 주로 액세서리, 문구, 잡화 분야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이 많은데, 인건비 및 생산원가 상승, 인민폐 평가절상에 따른 수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큼. 이로 인해 2008년 당시 7,000~8,000명에 달했던 한국인 상주인구가 현재는 4,00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상당수 기업 및 사업가들이 철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¹⁹⁾
- 참고로 우리보다 저장성 진출이 활발한 현지 대만기업도 최근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²⁰⁾
- 원저우시 대만기업 중 안경 제조업체의 인력부족이 가장 심각하며,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이른바 ‘지우링허

19) 원저우한국상회, 이우한국인회 관계자와의 전화 인터뷰(2011. 7. 4) 내용임.

20) 『工商時報』(2011. 6. 18), 「저장성 중소기업 경영난, 대만기업에까지 영향 미쳐」.

우(90後) 세대는 근무환경에 까다롭고 초과근무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아서 올해 평균 임금을 30% 인상했음에도 여전히 근로자를 구할 수가 없음.

- 이우시 대만기업협회 회장도 전력난, 구인난, 인민폐 평가절상에 따른 수출난 등을 문제로 지적함.
- 향후 저장성 정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저장성에 진출할 때 해당 정부의 전략 및 방향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이에 부합하는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KIBP**